

초연결시대 치유 실천을 위한 (탈)인간론 탐색

- 스피노자의 개체화 이론을 중심으로 -

김기명

(강원대학교 · 인문과학연구소 · 전임연구원)*

- I. 서론: 초연결시대 인문치료의 과제
- II. 치료적 철학으로서 스피노자의 『에티카』
- III. 두 가지 개체화 양태: 외부화와 내부화
- IV. 혈액 속 벌레의 사례: 두 개체화 방식의 물리적 사례
- V. 상상과 이성 개념의 재해석
- VI. 나가며: 스피노자의 포스트휴머니즘과 치유실천전략

* osr1998@gmail.com

I. 서론: 초연결시대 인문치료의 과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전 지구적 초연결성의 시대를 열었다.¹⁾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 연결성의 증대는 역설적으로 개인의 고립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셰리 터클(Sherry Turkle)이 『외로워지는 사람들』(Alone Together)에서 지적했듯이, 디지털 기술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쉼 없이 연결된 상태로 만들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친밀감과 유대를 상실하게 만든다.²⁾ 메리 차이코(Mary Chayko)는 『초연결 사회』(Superconnected)에서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현대 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되었다고 분석한다.³⁾ 실제로 우리는 필터 버블 속 확증편향의 심화, 극단적 정치적 양극화, 디지털 중독, 사회불안장애의 증가,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해리성 장애 등 다양한 정신병리적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다. 초연결성은 또한 전통적인 시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려 일과 생활의 균형을 파괴하고, 끊임없는 접속과 반응의 압력 속에서 디지털 피로 혹은 ‘테크노스트레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만성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현대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인문학의 여러 이론적 흐름 속에서 이러한 초연결시대의 병리현상에 대한 대응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듯 보인다. 첫째

1)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2628)

2) 셰리 터클, 『외로워지는 사람들: 테크놀로지가 인간관계를 조정한다』, 이은주 옮김, 청림출판, 2012.

3) 메리 차이코, 『초연결사회: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기술-사회 생활』, 배현석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8.

는 한병철 같은 사상가들이 제시한 것으로서, 일종의 ‘로그오프’ 전략이다.⁴⁾ 즉, 디지털 기술과 초연결로부터의 의도적 단절을 통해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다. 제니 오델은 주목 경제에 저항하고 디지털 기기와 소셜미디어로부터 의도적으로 분리되는 실천을 ‘주의력의 저항’으로 개념화합니다. 그녀는 기술과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관심의 재설계를 통해 디지털 자본주의의 속도와 생산성 논리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모색한다.⁵⁾ 하이데거 철학의 특정한 면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접근은 이미 깊이 디지털화된 현실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로그오프’ 기법의 하나로서 ‘마음챙김’ 명상과 같은 것이 실리콘밸리에서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산업을 이루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⁶⁾

둘째는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 닉 보스트롬(Nick Bostrom) 등이 주창하는 트랜스휴머니즘적 접근이다. 이들은 기술을 통한 인간 능력의 급진적 향상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⁷⁾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어떤 인간’이 이러한 향상된 능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트랜스휴먼으로의 진화가 극소수 엘리트 계층의 특권이 될 위험성은 현재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기술 발전의 비용이 시간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며 결국 모든 계층에 확산될 것이라고 반박

4) 한병철, 『투명사회』, 문학과지성사, 2014.

5) Odell, Jenny, *How to Do Nothing: Resisting the Attention Economy*, Melville House, 2019.

6) Purser, R., *McMindfulness: How Mindfulness Became the New Capitalist Spirituality*, London: Repeater Books, 2019.

7) 닉 보스트롬, 『슈퍼인텔리전스: 경로, 위험, 전략』, 강정임 옮김, 까치, 2017;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인간을 초월하는 기계의 시대가 온다』, 김명남·장시형 옮김, 김영사, 2007.

한다. 제임스 휴즈(James Hughes)와 같은 이들은 ‘민주적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향상 기술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도 한다.⁸⁾ 또한 추가적인 재반론으로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므로, 기술 발전을 제한하기보다 분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반론들은 현대 기술 개발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 우선 초기 개발 비용이 높은 혁신 기술들은 대부분 자본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 선점되며, 그 혜택이 모든 계층에 확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기술 개발은 대부분 ‘문제 해결’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트랜스휴머니즘적 접근은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기술 사이의 이분법을 더욱 강화할 위험이 있다. 이는 초연결시대의 근본 문제인 분리와 소외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트랜스휴머니즘이 주로 개인 수준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동체적 관계성과 생태계적 상호의존성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는 포스트휴머니즘적 접근이다. 이는 초연결시대가 드러내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오히려 인간을 더 큰 관계성, 즉 자연의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재정의하고자하려는 일련의 흐름을 말한다.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와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등으로 대표되는 이 흐름은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론적 지평을 모색한다.⁹⁾ 특히 포

8) James Hughes, *Citizen Cyborg: Why Democratic Societies Must Respond to the Redesigned Human of the Future*, Basic Books, 2004.

9) Haraway, D. J.,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스트휴머니즘적 관점은 치료적 실천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을 요구한다. 기존의 관점이 개별화된,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의 정신과 행위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치료의 일차적 대상으로 한다면, 포스트휴머니즘적 치료는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기술, 환경, 타자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발생하는 집합적 변용의 과정으로 치료를 재개념화한다. 이는 치료의 대상을 개별 주체에서 관계의 생태학 속 행위자, 혹은 행위자-네트워크로 확장하는 것이다.¹⁰⁾

우리는 이러한 포스트휴먼적, 관계지향적 사유의 문제의식에 동감하면서, 근대의 시작점인 17세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으로 거슬러 올라가 포스트휴먼적 (탈)인간론의 이론적 기원을 되짚어 보려 한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현대 이론의 선구자를 과거에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현대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이 직면한 이론적 난점들을 더 깊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대 포스트휴머니즘과 신유물론은 생명공학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는 현대적 맥락에서 등장했지만, 이들 이론이 비판하는 인간중심주의와 이원론적 세계관은 바로 근대 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그 비판의 대상이 형성된 역사적 지점으로 돌아가, 당시에 이미 그러한 지배적 패러다임에 도전했던 대안적 사유의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당시는 신학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근대적 인간관이 형성되던 시기였다. 당시 시작된 새로운 철학운동의 주요인물들 중 흄스와 데카르트가 이후 서구사유의 주류를 이루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토대가 되는 사유를 발전시켰다면, 스피노자는

Routledge, 1991;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5.

10) 아네마리 몰, 『바디 멀티플: 의료 실천에서의 존재론』, 송은주, 임소연 옮김, 그린비, 2022.

이와 전혀 다른 방향의 철학을 발명하고자 했다.

스피노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근대철학적 상상력’ 안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대의 근대적 패러다임 자체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은 내재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론에 기반한 사유를 통해 당대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신학은 물론, 데카르트와 흄스의 새로운 개인주의적 인간론에도 도전했다. 특히 그의 개체화 이론은 독립적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관념 자체를 해체하고, 모든 존재를 관계적 과정으로 재개념화했다는 점에서, 해러웨이나 브라이도티와 같은 현대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의 관계적 존재론과 놀라운 연속성을 보여준다. 물론 스피노자가 오늘날의 생명공학이나 디지털 기술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그의 이론은 오히려 특정 기술의 맥락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존재론적 통찰을 제공한다. 이는 현대 포스트휴먼리즘 담론이 때로 최신 기술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매몰되어 철학적 깊이를 상실할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더욱이 스피노자는 단순히 이론적 통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자유와 기쁨을 위한 실천적 윤리학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특히 초연결 시대의 실질적인 치유 전략 수립에도 귀중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치료적 철학으로서 스피노자의 『에티카』

스피노자의 대표작인 『에티카』가 근본적으로 치료적 철학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책은 곧 “정서의 힘”에 의한 “인간의 예측”¹¹⁾

상황에서 출발해 “지성의 역량”을 통해 “인간의 자유”¹²⁾에 도달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피노자는 상세하게 수동적인 정서(정념)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 나타나고, 억제되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설명(‘기하학적 서술방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 의미에서의 심리치료와는 다르다. 통상적인 치료적 접근이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이미 존재하는 개별적 인간 주체를 전제한다면, 스피노자의 치료는 바로 이러한 전제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즉,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인간”, “인간 정신”, “인간 신체”를 말할 때, 그 “인간”은 우리가 아는 인간과는 매우 다른 어떤 존재양태다.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스피노자가 『에티카』의 서두에서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포함하여, 자연에 거주하는 모든 유한한 사물들을 실체, 즉 ‘자기 안에 있고 자기를 통해 인식되는’ 존재자가 아니라, ‘다른 것 안에 있고 다른 것을 통해 인식되는’ 양태로서 정의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외부 원인에 의해 생겨나는 사물들(즉, 양태들)은,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든 아니면 적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든, 그것들이 가진 완전성, 달리 말해 실재성의 모든 것을 외부 원인의 탁월성(virtue)에 빚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의 실존은 자신들의 완전성이 아니라 오직 외부 원

11) 『에티카』, 4부, “인간의 예속, 혹은 감정의 힘에 대하여”(De servitute humana seu de affectuum viribus), 이하에서 스피노자 『에티카』 인용은 Spinoza, B. de, *Ethik in geometrischer Ordnung dargestellt*, W. Bartuschat(Ed.), Hamburg: Meiner Verlag, 1999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하여 인용하였다. 스피노자의 편지들은 스피노자, 『스피노자 서간집』, 이근세 옮김, 아카넷, 2018.에서 인용하였다. 스피노자 학계의 통상적인 인용방식을 따라 책의 쪽번호 대신 정의, 공리, 정리, 편지 등의 번호를 표기하였다. (예 『에티카』, 2부 정리 13 주석, 편지 32 등)

12) 같은 책, 5부, “지성의 역량, 혹은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De potentia intellectus seu de libertate humana).

인의 완전성에서 연원한다.” 유한한 존재자들을 독립적인 실체가 아닌 본질적으로 다른 것에 의존적인, 즉 상호의존적인 양태로 보는 이러한 근본적인 존재론적 위치 설정은 그의 치료적 철학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에티카』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적 대립을 제시한다. 적합한(충분한, adequate) 인식과 부적합한(불충분한, inadequate) 인식, 상상과 이성, 수동성과 능동성, 예측과 자유 같은 개념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인간을 수동적 정서의 예측으로부터 능동적이고 덕스러운 자유로 인도하고자 하는 스피노자의 치료적 기획을 구조화한다. 그런데, 숙련된 전공자들을 포함한 이 책의 많은 독자들은 이러한 대립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스피노자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해석은 ‘부적합한 인식’과 ‘적합한 인식’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인간 정신이 소유하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인식으로 본다. 마치 우리의 정신이 부적합한 관념이나 적합한 관념을 담고 있는 용기인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해석은 스피노자 기획의 급진적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인간 정신을 그런 식으로 관념들의 기저에 놓인 기체(subject)나 사유활동의 주체(subject)로 파악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위에서 본 ‘실체’이지, ‘양태’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부적합한 인식과 적합한 인식이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정신 안의 서로 다른 유형의 관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체화의 양태, 즉 개체 자체가 구성되는 서로 다른 존재론적 방식(양태)이라면 어떨까? 이러한 재해석은 스피노자의 치료적 철학을 이해하는 데 깊은 함의를 지닌다. 이는 부적합한 인식에서 적합한 인식으로의 이행이 어떤 존재론적 변형임을 시사한다. 스피노자가 수동적 정서의 예측과 이것이 능동적

덕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논할 때, 그는 변화하지 않는 개인 내부의 심리적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재 양태의 근본적인 재조직화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더 정확히는 그러한 ‘이행’과 ‘변화’가 ‘어떤 주체’, ‘어떤 개인’이지, 이행과 변화를 겪는 선행적인 어떤 기체(subject)로서의 주체나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에서는 스피노자 연구에서 자주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한 두 텍스트, 즉 『에티카』 2부 정리 11의 따름정리와 『스피노자 서간집』의 편지 32에 대한 면밀한 독해를 통해 이러한 새로운 해석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스피노자가 전통적인 주체-객체 이분법을 초월하는 정교한 개체화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이것이 우리 현대사회의 인문치료에 어떤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III. 두 가지 개체화 양태: 외부화와 내부화

『에티카』 제2부 정리 11의 따름정리부터 살펴보자. 이 따름정리는 스피노자 스스로가 주석을 덧붙여서 독자들에게 경고할 만큼, 매우 중요한 텍스트다. 그는 “나와 함께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모든 것을 읽기 전까지는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스피노자는 왜 이 특정한 지점에서 그러한 경고를 할 필요를 느꼈을까?

이 따름정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로부터 인간 정신은 신의 무한 지성의 한 부분이라는 점이 따라 나

온다. 그러므로 인간 정신이 이것 혹은 저것을 지각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한한 한에서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본성에 의해 설명되는 한에서의 신, 달리 말해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서의 신이 이런저런 관념을 갖는다는 것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 정신의 본성만을 구성하는 한에서가 아니라, 인간 정신과 함께 다른 사물의 관념도 가지고 있는 한에서의 신이 이런저런 관념을 갖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인간 정신이 그 사물을 부분적으로, 달리 말해 부적합하게 지각한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따름정리의 첫 부분, 즉 인간 정신이 신의 무한한 지성의 부분이라는 점이 당시의 독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진정한 어려움은 후반부에 있다. 이 부분에서 스피노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인 한에서”¹³⁾ 구절을 도입하여 근본적으로 상이한 두 가지 개체화 원리를 확립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면밀히 분석해보자. 우선 첫 번째 경우에서, 신은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서” 이런저런 관념을 가진다. 이것은 이하에서 내가 ‘적합한(충분한) 개체화’ 또는 ‘내부화’라고 부르는 경우인데, 무엇보다 정신 외부에 어떤 다른 것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른 사물이 없으므로, 하나의 정신으로 변용된 신이 여기서 가지는 이런저런 관념은 정신의 자기 개념이 된다. 그 관념은 정신의 ‘내적 부분’이므로, 이 이런저런 관념의 존재를 부정하면, 정신 자체가 파괴되는 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점은 이것들이 단순히 이미 고정된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정신이 소유하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인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13) 라틴어 quatenus 또는 eatenus 조건절로, 영어로는 insofar... 조건절에 해당한다.

오히려 이들은 정신 자체가 개체화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을 나타낸다. 적합한(충분한) 개체화에서는 정신과 그것의 관념 사이에 외적 분할이 없다-이들은 통합적(integral) 전체를 이룬다. 부적합한 개체화에서는 정신과 그것이 지각하는 사물 사이에 현행적 구분이 이뤄져서, 정신 안에는 그 지각되는 사물에 대한 부분적이고 부적합한 인식이 주어진다. 현대적 용어로 말하자면, 이는 주체-객체 이분법을 말한다.

이러한 해석은 스피노자가 독자들에게 경고할 필요를 느낀 이유를 드러낸다. 그는 단순히 서로 다른 유형의 인식에 관한 인식론적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체화 양태에 관한 급진적인 존재론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적합한 인식과 부적합한 인식의 구분은 우리의 관념들의 내용(contents)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개체로서 어떻게 구성(constitution)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적합한 개체화와 부적합한 개체화의 틀이 『에티카』의 많은 핵심적 대립들인 상상과 이성, 수동성과 능동성, 예측과 자유, 정념과 덕 등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각각의 쌍들은 단순히 고정된 주체의 서로 다른 상태들이 아니라, 내부화나 외부화의 과정을 통해 주체 자체가 구성되는 서로 다른 방식들을 나타낸다.

IV. 혈액 속 벌레의 사례: 두 개체화 방식의 물리적 사례

이제 바로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개체화 방식(양태), 즉 외부화와 내부화라는 이론적 틀이 물리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스피노자 서간집』에서 스피노자가 올덴부르크에게 보

낸 편지 32에 제시된 ‘혈액 속의 벌레’라는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편지는 외부화와 내부화의 원리가 물리적 물체들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텍스트는 두 개의 “~인 한에서” 조건절을 사용함으로써 『에티카』 2부 정리 11 따름정리의 형식과 완벽한 조응을 보여준다.

해당 사례를 검토하기에 앞서, 스피노자의 정신-신체 합일 이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에티카』 2부 정리 13의 주석에 따르면, 정신과 신체는 하나이자 동일한 개체이며, 이 둘은 단지 개념적으로만 구별된다. 따라서 우리가 정신에서 확인한 두 가지 개체화 방식은 필연적으로 신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취해야 한다.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시에 신체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편지 32에서 스피노자는 일종의 사고실험 속에서 혈액 속에서 살아가는 벌레를 상정한다(물론, 실제로 우리의 혈액 속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 예를 들어 림프와 유미 등의 분자들의 운동이 서로 전적으로 일치하고 모두가 함께 단일한 액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크기와 형태의 관계하에서 서로 조정될 경우, 오직 이런 점에서(eatenus) 림프와 유미 등은 피의 부분들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quatenus] 림프 분자들이 형태와 운동의 관계에서 유미의 입자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파악하는 한에서(eatenus), 우리는 그것들을 부분이 아닌 전체들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혈액 속에서 살고 있는 유충을 상상해보겠습니다. 이 유충은 혈액, 림프, 유미 등의 분자들을 눈으로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각 분자가 다른 분자를 마주치면서 튕겨나가거나 자신의 운동의 일부분을

전달하는지 추론을 통해 파악한다고 상상해보겠습니다. 이 유충은 우리가 우주의 한 부분에서 사는 것처럼 혈액 속에서 살 것이며, 혈액의 요소들 각각을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 유충은 어떻게 모든 부분이 혈액의 보편적 본성에 의하여 조정되는지, 그리고 이 본성에 의하여 일정한 법칙에 따라 서로가 조화되는 방식으로 상호 적응되는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¹⁴⁾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이중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혈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그것의 부분들의 운동이 서로 전적으로 일치하고(plane consentire) 모두가 함께 단일한 액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크기와 형태의 관계하에서 서로 조정되는(se accomodare) 한에서. 이 경우 부분들은 서로 외재적이지 않고 상호 적응을 통해 통합적 전체를 형성한다. 이는 앞서 본 『에티카』 2부 정리 11 따름정리의 첫 번째 상황, 즉 정신적 개체의 내부화 혹은 적합한 개체화에 조응하는데, 문구를 바꿔 적용해 보면 “신, 달리 말해 혈액[의 운동]의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의 신이 그 공통의 운동을 구성하는 이런저런 분자들의 운동의 관념을 갖는” 상황과 같다.

둘째, 부분들이 서로 형태와 운동에 있어 각기 다른 것들로서 파악되는 한에서이다. 이는 외부화 또는 부적합한 개체화에 상응한다. 이 경우 부분들은 더 큰 통일성의 부분이 아닌 각각이 개별적 전체로 간주된다. 스피노자는 여기서 “혈액, 림프, 유미 등의 분자들을 눈으로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각 분자가 다른 분자를 마주치면서 튕겨나가거나 자신의 운동의 일부분을 전달하는지 추론을 통해 파악”하는 벌레를 소개

14) 편지 32, 번역은 일부 수정.

한다. 우리가 이 우주 속에서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벌레는 혈액 속에서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체-객체의 이분법 하에서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듯, 시지각을 통해 각각의 입자가 혈액의 부분이 아닌 전체로 간주한다. 그러는 한에서 벌레는 모든 부분들이 혈액의 보편적 본성에 의해 어떻게 상호 적응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즉 “벌레의 정신과 함께 림프, 유미 등 다른 분자들의 관념도 가지고 있는 한에서의 신이 이런저런 관념을 갖는”, 즉 “벌레의 정신이 림프, 유미 등을 부분적으로, 달리 말해 부적합하게 지각”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히 인식론적 구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벌레의 부적합한 이해는 그것의 실제 물리적 조건에 상응한다. 벌레는 하나의 입자로서, 외적 물체인 다른 입자들에 의해 물리적으로 영향(이 경우는 시각적 자극)을 받는다. 스피노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러 비인간 물체인 벌레를 의인화하고 있을 뿐, 우리는 여기서 혈액의 전체 운동과 정지의 관계와 상관없이 고려된 벌레가, 역시 별도의 전체로 고려된 림프의 분자와 물리적으로 마주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혈액의 예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심급에서, 한편으로는 공통의 운동과 정지의 관계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개별적이고 외부화된 마주침들 역시 일어나는 상황을 발견한다. 개별자(전체)로서의 벌레의 신체 운동은 혈액의 공통 본성에 대한 참여가 아닌 이러한 외적 마주침들에 의해 결정된다. 더 정확하게는, 이 외적 마주침 때문에 개별자로서의 벌레의 신체가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개별자들이 애초에 실체로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부화시키는 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개별자, 저 개별자로 나타나는 것(개체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외부화와 함께, 벌레의 신체는 여전히 혈액의

공통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것의 운동은 혈액의 내적 부분으로서 전체의 운동과 적응되고 합의를 이룬다. 외부화와 내부화라는 두 개체화 양태에의 이러한 동시적 참여가 실체가 아닌 양태로서의 사물들이 가진 복잡성을 특징짓는다.

V. 상상과 이성 개념의 재해석

정신과 신체 모두에서 두 가지 개체화 방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검토한 지금, 이러한 틀이 스피노자가 각각 정서의 지배와 인간의 자유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 ‘상상’과 ‘이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에티카』를 비롯한 17세기 철학에서 ‘상상’은 칸트 시대 이후 일상화되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법(이를테면 ‘상상력’, ‘허구’, ‘환상’)과는 상당히 다른 특수한 기술적 의미를 지닌다. 상상(imaginatio)은 감각적 경험과 기억을 통해 우리가 얻는 제1종의 인식을 지칭한다. 이는 외적 사물들과의 마주침을 통해 형성되는 우리의 일상적 지각, 의견, 믿음을 포함한다. 이성(ratio)은 제2종의 인식으로서, 사물들을 그것들의 원인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스피노자는 “공통 개념들”이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이성을 포착한다.¹⁵⁾

많은 경우 스피노자의 상상과 이성 개념은 이미 존재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 주체가 소유하는 서로 다른 인식 능력이나 인식 수준인 것처럼 해석되어 왔다. 상상은 열등한, 혼란스러운 인식 방식으로, 이

15) 공통개념(notio communis)이라는 개념은 본래 자명한 진리, 즉 공리(axiom)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이 단어를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인식론의 핵심 개념어로 삼았다.

성은 우월한, 명석한 인식 방식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우리의 재해석은 상상과 이성 이 단순히 서로 다른 인식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 방식, 즉 개체로서 우리가 구성되는 서로 다른 방식임을 보여준다. 스피노자가 상상과 이성을 대비할 때, 그는 단순히 두 가지 유형의 정신 작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구별되는 개체화 양태, 즉 우리가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개체로 구성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상상부터 살펴보자. 『에티카』 2부 정리 16의 두 번째 따름정리에서 스피노자는 외적 사물들의 이미지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부 사물의 관념들이 “외부 물체들의 본성보다는 우리 신체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서 지각할 때, 우리의 신체가 실제로 이 사물에 의해 외부화되고, 외적 원인으로서의 그 물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에티카』 2부 정리 24에 따르면, 우리는 외부 사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체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체-객체 도식상의) 객체로 제시되는 한에서는, 부분적이고 부적합한 이미지들만을 가진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그 답 역시 이러한 부분들이 현행적으로 외부화되기 때문이라는 점에 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 2부 정리 24를 증명하며,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 신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그것들이 서로 일정한 고정된 방식으로 그들의 운동을 전달하는 한에서만 인간 신체의 본질에 속하며, 인간 신체와의 관계없이 개체들로 간주되는 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타자를 치고 있는 내 손가락을 예로 들어보자. 타자를 치는 행위에서 손가락의 운동이 내 신체의 다른 부분들의 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한에서, 그것은 내 신체 안에 내부화되어 있다. 그러나 동

시에 나는 내 손가락을 하나의 대상으로 지각하고, 그것의 영향을 받으며, 그것에 대한 상상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가락의 내 신체로부터의 실제적 외부화가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내 신체는 손가락으로부터 외부화된다.

이는 상상이 단순한 정신적 오류가 아니라 실재적인 물리적 존재 양태, 즉 신체들이 서로로부터 실제로 외부화되는 것에 상응함을 보여준다. 손가락은 현행적으로 나의 몸과 분리된 전체인 것이다. 이러한 외부화를 통해 우리의 정신과 신체는 무한히 많은 외적 원인들에 의존하며, 그것에 압도되는 우연적 존재가 된다. 즉, 내가 많은 것들을 주체-객체의 도식 속에서 타자화할수록, 우리는 그것들의 원인을 모르고, 더 무능력해진다. 스피노자는 ‘독립적 인간’이라는 환상에 누구보다도 비판적인 철학자였다. 『에티카』 4부 정리 4에서 그는 “인간이 자연의 부분이 아니며, 자신의 본성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변화 외에는 어떠한 변화도 겪을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4부 정리 18의 주석에서는 “우리의 정신을 살펴보면, 정신이 홀로이고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신은 확실히 보다 불완전한 것이 될 것”이라 말한다.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 외부적 개체화가 곧 인간의, 아니 모든 개체들이 가진 근원적인 취약성(vulnerability)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스피노자에게 이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에티카』 2부 정리 29의 주석에서 스피노자는 중요한 구별을 도입한다. 정신은 “외적으로, 사물들과의 우연적 마주침으로부터 규정되는 한에서”는 부적합한 인식을 가지지만, “내적으로, 즉 다수의 사물들을 동시에 관찰함으로써 그것들의 일치, 차이, 대립을 이해하도록 규정되는” 때에는 명석판명한 관념들을 가진다. 이러한 내적 규정은 스피노자가 “공통 개념들”

(notiones communes)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 달성된다.

이 공통 개념들이란 무엇인가? 『에티카』 2부 정리 38과 39에서 스피노자는 이것들이 “모든 것에 공통적인 것” 혹은 “인간 신체와, 인간 신체가 영향을 받는 특정한 외적 물체들에 공통적이고 고유한 것”으로부터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공통 개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미리 존재하는 신체들이 공유하는 속성들이 아니다. 어떤 물체들이 현행적으로 마주쳐서 공통된 운동과 정지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테면 혈액 속의 벌레와 유미분자, 림프 분자들이 혈액이라는 공통의 운동과 정지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 “그 운동과 정지의 관계”가 그 물체들에 ‘공통적이고 고유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것에 상응하는 관념을 스피노자는 ‘공통 개념들’이라고 부른다.

이는 스피노자에게 이성이 객체와 분리된, 관찰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주체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이성의 현행적이고 상황적인 실행 속에서만 존재하는 실천적 능력임을 의미한다. 즉 모든 이성(칸트와는 매우 다른 의미에서) ‘실천이성’이다. 이를테면 내 신체가 다른 신체들과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즉, 다른 신체들을 내 신체로 내부화하면서 생겨나는 이러한 신체적 실행의 명석판명한 관념이 생겨날 때, 나는 이성적이다. 따라서 이성은 참여의 능력, 공통적인 것을 통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확장의 능력인 것이다.¹⁶⁾ 고도근시인 사람의 신체는 안경이라는 신체와 합치되고 상호 적응하게 됨으로써 “보는 사람”이

16) 스피노자는 『에티카』 4부 정리 59에서 “수동인 감정에 의해 결정되어 하게 되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는 그 감정 없이 이성(이성)에 의해 결정되어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주석에서 이 ‘이성적 행위’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예를 제시한다. “말하자면 때리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고려되는 한에서, 그리고 한 사람이 팔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어 팔 전체를 힘차게 아래로 움직인다는 사실만을 주목하는 한에서는 인간 신체의 구조에 의해 사유되는 탁월성이다”.

된다. 시속 4km의 걸음 속도를 갖는 내 신체이지만, 자동차 운동과 정지의 관계를 내 신체의 운동과 정지의 관계로 내부화하면 100km의 속도로 이동하는 역량을 표현한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내 신체가 단지 피부라는 경계면 아래 있는 어떤 덩어리가 아니라, 의자, 책상, 그 책상을 받치고 있는 건물의 구조체, 대지, 컴퓨터 자판, 회로, 인터넷 회선, 그 회선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누군가의 노동 등 무한히 많은 것들을 내부화하고, 동시에 그 운동과 정지의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스피노자의 ‘이성’ 개념이다.

이러한 이해는 한편으로 스피노자가 이성적 삶을 결코 고립된 현자의 삶 속에서 찾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가 『에티카』 4부 정리 18의 주석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이 모든 것에서 합치하여 모두의 정신들과 신체들이 거의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신체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 한에서 모두 함께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모두 함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유용한 것을 각자를 위해 추구하는 것보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데 더 훌륭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성은 독립적 주체의 능력이 아니라 적합한 개체화를 통해 공통적인 것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VI. 나가며: 스피노자의 포스트휴머니즘과 치유실천전략

스피노자의 개체이론은 자기와 타자 간의 어떠한 견고한 존재론적 경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개체를 이 관념이나 저 관념을 소유한 정신적 기체(subject)나, 이 행동, 저 행동을 술어로 갖는 어떤 주체(subject)로

바라보는 것은 어떤 사태를 언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매우 미시적 차원에서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무한하게 얹혀 있는 관계들과, 그 관계의 모든 국면마다 외부화와 내부화라는 두 양상으로 펼쳐지는 개체화의 사태들을 통해 이 개체, 저 개체가 어떤 지속을 가진 기체/주체(subject)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편의상 사용하였지만, 사실 1인칭 주어(나/우리)부터가 스피노자의 체계 안에서는 상당히 문제적인 것이다. 스피노자의 엄밀한 형이상학적 체계에서 고정된 범위의 “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타자치는 행위에서 우리의 사유를 더 확장해 보면, 어떤 국면에선 “내 신체”는 영원한 우주 전체 그 자체일 수도 있다. 그 국면에선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 신체”라고 부르곤 하는 이 몸(그러니까 피부라는 경계면 아래 있는 어떤 덩어리)이 필연적 인과법칙에 의해 어느 날 파괴된다 할지라도 “인간 정신은 신체와 더불어 절대적으로 파괴될 수 없으며, 그것 가운데 영원한 어떤 것은 남는다.”¹⁷⁾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연 안의 모든 사물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¹⁸⁾ 비인간 사물의 하나인 ‘국가’가 “마치 하나의 정신에 의해 이끌리는 다중의 역량에 의해” 그 권리가 결정되는 하나의 윤리적, 인식적 주체라는 스피노자의 주장들¹⁹⁾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인간이든 아니든, 생물이든 아니든, 자연이라는 관계망 속에서 외부화라는 개체화를 겪을 때 외부 사물에 의해 결정되어 수동적 정서에 종속되고 부적합한 인식을 지닌 어떤 개체적 정신이 나타나며, 내부화, 즉 외부 사물과의

17) 『에티카』, 5부 정리 23. 이 구절과 관련되어 있는 3종 인식으로서의 직관지, 신의 지성적 사랑, 지복(beatitudo)과 관련된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18) 같은 책, 2부 정리 13 주석.

19) 스피노자, 『정치론』, 공진성 옮김, 길, 2019, 3장 7절.

공통-되기라는 개체화를 겪을 때 능동적 기쁨과 인과관계(행위/사태)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가진 어떤 개체적 정신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과는 어떤 상관도 없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즉 공통-되기 속에서 공통의 본성을 곧 자기 본성으로 가질 때 스피노자는 그것을 ‘자유’로 포착한다. 즉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는 독립적인(independent) 삶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자유는 우리가 살피본 것과 같은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포스트휴먼적 관점은 초연결 시대의 치유전략에 관한 핵심적 논점으로 우리를 이끈다. 상상과 수동적 정서에의 연속 상태에서 이성으로의 이행은 단순히 우리가 고정된 정신으로서 사물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개체로서 존재하는 방식의 변형, 즉 외부화에서 내부화로, 부적합한 개체화에서 적합한 개체화로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개체화 이론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언제나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 의존함으로써 인간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가 ‘나의 역량’이라고 생각한 어떤 것도 다른 것들에게서 빚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초연결사회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근본적 관계성을 망각하게 만든다. 끊임없는 접속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고립과 취약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관계가 외부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와 ‘팔로우’는 타인과의 진정한 내부화된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오히려 우리를 더욱 고립된 개체로 만들어버린다.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전지구적 연결망은 우리에게 전혀 없는 관계의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들이 주로 외부화의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수동적 정서와 부적합한 인식의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상의 타인들은 우

리에게 극도로 외부화된 대상으로 나타나며,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동적 정서(열광, 분노, 질투, 우울 등)의 지배를 받는다. 빅테크들과 몇몇 대기업 집단이 주도하여 생산되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 역시 우리의 신체와 적절히 내부화되지 못한 채 외부화된 대상으로 기능하면서, 우리를 항구적인 중독과 피로에 빠뜨린다. 필터 버블이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은 이러한 외부화된 관계가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부적합한 인식의 사례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유실천의 핵심 과제는 우리의 근원적인 관계성을 재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나와 연결된 사물, 가족, 이웃, 그리고 더 넓은 사회적, 생태적 관계들, 즉 이 행성적 대지 위에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방식을 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디지털 기술과의 관계 역시 재고하게 만든다. 기술이 거대 자본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하이테크’(high-tech)로서가 아니라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로 사용된다면, 이는 더 이상 사용자를 외부화하며 취약성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관계성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적 존재 방식을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과 인간 모두와의 새로운 내부화된 관계를 모색할 때, 우리는 초연결시대의 치료적 대응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물, 아네마리, 『바디 멀티플: 의료 실천에서의 존재론』, 송은주 · 임소연 옮김, 그린비, 2022.
- 베네틱투스 데 스피노자, 『정치론』, 공진성 옮김, 길, 2019.
- 브라이도티, 로지,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5.
- 보스트롬, 닉, 『슈퍼인텔리전스: 경로, 위험, 전략』, 강정임 옮김, 까치, 2017.
- 스피노자, 『스피노자 서간집』, 이근세 옮김, 아카넷, 2018.
- 차이코, 메리, 『초연결사회: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기술-사회 생활』, 배현석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8.
- 커즈와일, 레이, 『특이점이 온다: 인간을 초월하는 기계의 시대가 온다』, 김명남 · 장시형 옮김, 김영사, 2007.
- 터클, 셰리, 『외로워지는 사람들: 테크놀로지가 인간관계를 조정한다』, 이은주 옮김, 청림출판, 2012.
- 한병철, 『투명사회』, 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4.
- Haraway, D. J.,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1991.
- Hughes, James, *Citizen Cyborg: Why Democratic Societies Must Respond to the Redesigned Human of the Future*, Basic Books, 2004.
- Odell, Jenny, *How to Do Nothing: Resisting the Attention Economy*, Melville House, 2019.
- Purser, R., *McMindfulness: How Mindfulness Became the New Capitalist Spirituality*, London: Repeater Books, 2019.
- Spinoza, B. de, *Ethik in geometrischer Ordnung dargestellt*, W. Bartuschat(Ed.), Hamburg: Meiner Verlag, 1999.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연결시대의 병리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철학적 자원으로 스피노자의 개체화 이론을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포스트휴먼적 치유 실천의 근거에 놓인 이론적 전제를 탐구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전 지구적 초연결성의 시대를 열었지만, 역설적으로 개인의 고립과 소외, 불안, 디지털 중독 등 정신병리적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대응 전략으로는 디지털 기술로부터의 의도적 단절(로그오프 전략), 기술을 통한 인간 능력의 급진적 향상(트랜스휴머니즘), 그리고 인간을 더 큰 관계성 속에서 재정의하려는 포스트휴머니즘적 접근이 있다. 본 연구는 세 번째 접근에 동조하면서, 근대 철학의 시작점인 17세기 스피노자의 존재론을 통해 포스트휴먼적 치유 실천의 기반을 탐색한다. 스피노자의 『에티카』 2부 정리 11 따름정리와 『서간집』의 편지 32에 대한 면밀한 독해를 통해, 모든 사물이 내부화와 외부화라는 두 가지 개체화 양태로 존재함을 밝히고, 이로부터 상상(외부화)과 이성(내부화)이라는 두 가지 존재 양식을 재해석한다. 우리는 초연결시대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주로 외부화의 방식으로 타자와 관계함으로써 수동적 정서와 부적합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치유 실천의 핵심 과제는 따라서 우리의 근원적 관계성을 재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내부화된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피노자적 접근은 고정된 주체가 아닌 관계적 개체화의 과정으로 인간을 이해함으로써, 초연결시대의 치유 실천에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주제어: 스피노자, 개체화, 포스트휴머니즘, 초연결사회, 디지털 기술, 치유 실천, 관계성, 내부화

【 ABSTRACT 】

Exploring (Post)Human Theory for Healing Practices in the Hyper connected Era: Focusing on Spinoza's Theory of Individuation

Kim, Ki-Myoung

(Research Fellow · Humanities Institute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interprets Spinoza's theory of individuation as a philosophical resource for addressing pathological phenomena in the hyper-connected era and explores the theoretical premises underlying possible posthuman healing practices. While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social medi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has ushered in an era of global hyper-connectivity, it has paradoxically intensified psychological pathologies such as individual isolation, alienation, anxiety, and digital addiction. The existing response strategies include intentional disconnection from digital technology (log-off strategy), radical enhancement of human capabilities through technology (transhumanism), and posthumanist approaches that seek to redefine humans within a broader spectrum of relationality. Aligning with the third approach, this study explores the foundation for posthuman healing practices through Spinoza's 17th-century ontology, the starting point of modern philosophy. A careful reading of Proposition 11, Corollary in Part II of Spinoza's *Ethics* and Letter 32 from his *Correspondence*, "reveals how all things exist in two modes of individuation—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and helps reinterpret imagination (externalization) and reason (internalization) as two modes of being. In the hyper-connected era, we predominantly engage with others through an externalizing mode of individuation mediated by digital technologies, which reinforces passive affects and inadequate understanding. Therefore the core challenge of healing practice is to rediscover our fundamental relationality and seek internalizing relationships that redefine ourselves.

This Spinozist approach provides an important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healing practices in the hyper-connected era by presenting humans as processes of relational individuation rather than fixed subjects.

Key words: Spinoza, individuation, posthumanism, hyper-connected society, digital technology, healing practice, relationality, internalization

투고 접수: 2025. 03. 06.	심사 완료: 2025. 04. 04.	게재 결정: 2025. 04. 09.
----------------------	----------------------	----------------------